

화합과 나눔의 배려 속 성황리에 마친 옷놀이 행사



이번 옷놀이와 행운권 추첨은 종전과 다른 대형 옷으로 길이 50cm, 지름 8cm의 옷가락을 한 사람이 한가락씩 4명의 선수가 하나, 둘 셋에 ‘화합합니다. 일치합니다. 용서합니다.’ 구호를 외치며 동시에 던졌으며, 행운권 시상품은 우리들의 집안에 묵혀 두었던 잠자고 있는 물품을 내 이웃과 나눈다는 의미로 모은 성의가 94개 품목이 접수 기증되었다. 행사 순서에 의하여 수녀님 세분과 사목회장의 옷놀이 한마당을 알리는 시웃에 이어 구역 대전과 행운권 추첨, 산하 단체전 결과 구역 우승은 3구역, 단체 우승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3월 31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이후 본당 마당에서 신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 화합의 옷놀이 한마당』 행사를 중식 후 시웃, 구역 대전, 행운권 추첨과 분과 산하 단체전, 투호, 다트, 제기차기 등의 종목으로 이어졌다.

봄을 시샘하는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 화합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합시다.’란 본당 사목목표를 달성해서 주님께서 보시기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성모님께 드린 9월 청원 기도로 훈훈한 열기로 이어져 갔다.



은 해설단이 차지하였으며, 행운권 우승상품은 공기 청정기가 수여되었다. 청소년분과에서는 성전 제1마당에서 투호와 다트 제기차기를 참여자 출전금 1,000원씩 받고 많은 출전자 중 우승은 김명동(세바스티아노)부부가 차지하였다. 이어 주임신부님께서 마침 기도와 축복을 해 주시고 교육관 그리스도 왕홀에서 본당 화합의 옷놀이 자체 평가 회의를 가져 추진위원들은 이번 행사가 서로가 수고했다는 상호 격려의 말과 주임 신부님의 ‘점수를 준다면 99점을 준다. 내년에는 100점 받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 신자들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역과 단체를 분류하지 말자. 중식은 무료배식하여 행사에 참여할 분과 부득이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중식 나눔의 잔치만이라도 같이 해야 한다는 안전이 제시되었다.

